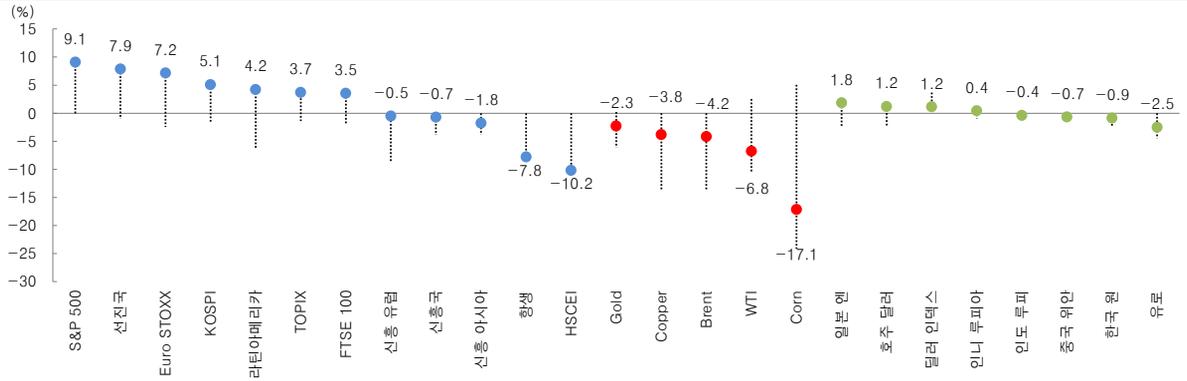


## 8월에도 KOSPI 반등이 지속되기 위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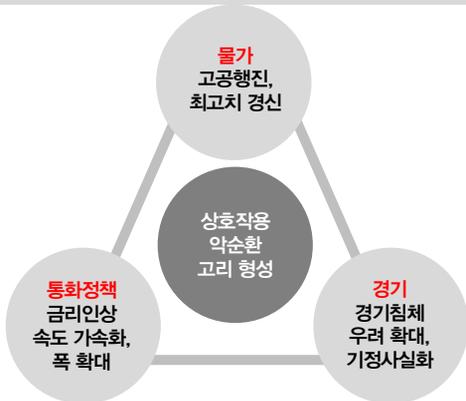
- 7월 글로벌 증시는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6월 CPI 충격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레벨다운으로 인한 물가 정점통과 기대를 시작으로 연초 이후 글로벌 금융 시장을 압박해왔던 물가, 통화정책, 경기 변수들 간 악순환의 고리가 약화된 결과라고 본다. 지난주 7월 FOMC, 미국 2분기 GDP 발표도 금리인상 사이클 7부 능선 통과, 경기침체 우려 완화로 인식되었다. 채권금리, 달러 하락세 지속으로 주식시장 반등은 지속되었고, 원자재 급락에는 제동이 걸렸다.
- 8월초 확인할 수 있는 미국, 중국, 한국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락 과정은 불가피하다. 1일 공개되는 미국 7월 ISM 제조업 지수는 6월 53보다 부진한 52로 예상되고, 3일 6월 제조업 수주도 5월 1.6%(전월대비)보다 둔화된 1%로 컨센서스가 형성 중이다. 5일 발표되는 7월 고용지표도 실업률은 3.6%로 유지되지만,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자수는 25만명으로 전월 37.2만명대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PMI도 확장국면인 50은 상회하지만, 전월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경제지표 둔화가 뚜렷하고, 빨라지고 있지만, 아직 경기침체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대부분 경제지표들은 확장국면을 유지 중이고, 전월대비 플러스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2010년 이후 저점권에 위치함에 따라 경제지표 결과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가능성도 낮다. 7월 증시 급등에 따른 단기 물량 소화과정은 불가피하지만, 기술적 반등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오히려 8월에는 물가 - 통화정책 - 경기침체 간 선순환 고리가 잠시나마 작동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 관건은 8월 10일 확인하는 7월 CPI 결과이다. 현재 컨센서스는 전월대비 CPI 0.2 ~ 0.3%, Core CPI 0.5% 전후, 전년대비 CPI 8.8% 전후, Core CPI 6 ~ 6.2%로 예상된다. 6월 CPI 9.1%(전년대비, 전월대비는 1.3%), Core CPI 5.9%(전년대비, 전월대비는 0.7%)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Core CPI는 전년대비 6%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연속 둔화 이후 반등이고 수요 불안을 진정시켜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물가/통화정책 안정과 경기침체 우려 완화 간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며 달러 약세, 채권금리 하락압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하에서 하향안정세를 이어갈 경우 KOSPI 기술적 반등의 수급주체인 외국인 순매수는 지속될 것이다. 8월초 KOSPI 2,400선 안착과정, 지지력 테스트가 전개된 이후, KOSPI 기술적 반등의 1차 목표치인 2,650선까지 반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낙폭과대 업종 중 실적대비 저평가된 업종인 IT가전, IT하드웨어, 반도체, 미디어/교육, 증권, 소프트웨어, 화장품/의류 등을 대상으로 단기 트레이딩 기회는 좀 더 열려있다고 본다. \* 자세한 내용은 8월 1일자 "[8월 주식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잠시 걱정은 접어 두고... KOSPI 반등 지속 가능성" 참조

그림 1. 7월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율. 채권금리 하락세 지속 & 달러 약세 반전으로 증시 상승, 원자재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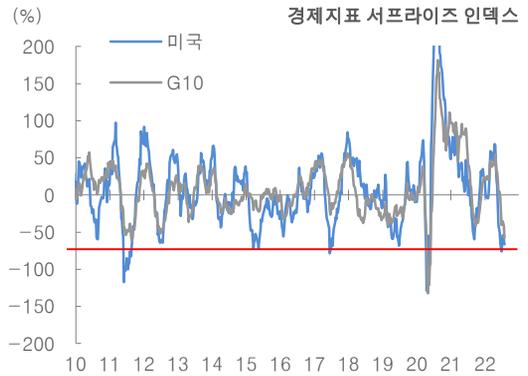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연초 이후 글로벌 증시 하방압력을 높였던 물가-통화정책-경기 간 악순환 고리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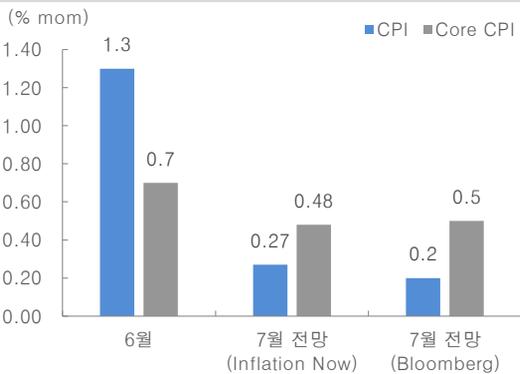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경제지표 확인심리 강화될 수 있지만... 경제지표에 대한 눈높이 충분히 낮아진 상황



자료: Citi,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8월 10일 발표되는 7월 CPI를 통해 물가 정점통과 확인시 기술적 반등 연장 가능



자료: Bloomberg, 클리브랜드 연연,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8월에도 통화정책 부담 완화 & 경기불안 심리 진정에 달러 약세, 금리 하락 지속 전망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